

제 1 부

본당의
역사

제 1 편

논산의 신앙 수용

이 글에서 ‘논산지역’이라 함은 1921년 논산본당이 설립되던 해의 본당 관할구역을 일컫는다. 초창기 논산본당은 현재의 논산시 전체와 대전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기성면 오리(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까지 관할하였으므로 이를 논산지역으로 규정한다. 논산지역의 천주교 역사는 조선 시대에는 전라도 관할이었던 진산지역, 그리고 여사울(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의 내포지역과의 연관 속에서 시작되었다.

현재의 논산시



I. 신앙공동체 형성과 박해

1. 첫 복음 터: 은진과 연산

기록을 중심으로 보면, 논산지역에 천주교를 처음 전한 인물은 복자 윤지현(프란치스코, 1764~1801)과 이도기(바오로, 1743~1798)이다. 두 사람에 의해 은진(恩津)에 복음이 전해졌고,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연산(連山)¹에도 전해져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다.

1764년 진산에서 태어난 윤지현은 복자 윤지충(尹持忠, 바오로)의 동생이다. 형 윤지충이 먼저 입교하였고, 윤지현은 형에게 교리를 배워 1789년에 입교하였다. 은진 사람 이채운(李采雲)이 윤지현에게 교리를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1789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은진에 복음이 전해졌다. 윤지현은 1801년 신유박해 당시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전주 감영 옥에 수감되었다. 이후 감영과 의금부를 오가며 문초와 형벌을 받았다. 결국 그는 1801년 10월 24일(음력 9월 17일) 능지처참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1743년 충청도 청양에서 태어난 복자 이도기는 고향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그는 신앙생활을 위해 여러 곳을 떠돌다가 정산의 어느 웅기점에 자리 잡았다. 그는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대표적으로 은진 사람 이상원(李尙元)이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도기는 1797년 6월에 체포, 그다음 해인 1798년 7월 24일(음력 6월 12일)에 정산 관아에서 장살(杖殺) 당하면서 순교하였다. 이를 보아 적어도 1797년 이전에 은진에 천주교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은진 사람 오한상(吳漢常)과 황경달(黃京達)도 신자가 되었다. 이들 네 사람(이채운, 이상원, 오한상, 황경달)은 모두 은진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체포되어 1801년 신유박해 때 유배형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은진에 천주교가 전해진 시기는 1790년 전후로 추정할 수 있다.

연산에도 비슷한 시기에 복음이 전해진 정황이 나타난다. 결성 덕머리(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덕머리마을)의 교우 원 베드로가 1794년이 지난 어느 날 박해를 피해 연산으로 이사하였다. 연산으로 이사하기 전, 그는 외교인이 운영하던 웅기가마에서 일하던 중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교우들이 사는 홍주 황쇠울로 이사하여 웅기를 구우며 살기도 하였다. 그는 황쇠울에서 관헌에게 체포되어 형벌을 받았다. 풀려난 후 그는 ‘연산 의실^{Eusil}’로 이사하였는데, 그곳 역시 교우들이 웅기를 굽는 마을이었다.

연산 의실은 지금의 논산시 벌곡면 어곡리에 있는 의실^{義室}이다.² 어곡리^{於谷里}는 조선 시대에 연산현의 벌곡면에 속해 있었다. 큰 골짜기 입구에 있으므로 느락골 또는 어라동^{漁羅洞}이라 하였는데, 이를 줄여 어곡^{於谷}이라 하였다.³ 연산 의실에서 남동쪽으로 산을 넘어 6km 정도 가면 금산군 진산면의 지방리와 막현리에 이른다. 두 마을은 진산에 천주교를 처음 받아들인 윤지충과 그의 동생 윤지현이 성장했다고 여기는 지역이다. 따라서 은진처럼 의실에도 이들의 영향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
복자 이도기
(바오로)와
윤지현
(프란치스코)



2. 박해기의 피난처

초기 교회사에서 연산은 내포지역과 서울 교우들의 피신처로 나타난다. 중앙정부가 있는 서울, 그리고 내포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홍주^{洪州}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듯하다.

위에 언급한 원 베드로와 비슷한 시기에 덕산 황무실(충남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사람 복자 이보현(프란치스코, 1773~1800)과 덕산 용머리(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사람 황심(토마스, 1756~1801)이 연산으로 이주하였다. 서로 매형과 처남 사이였던 이보현과 황심은 1795년 이전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려고 연산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교회 일을 하였다. 황심의 경우 윤지현의 추천으로 복경을 왕래하며 교회의 밀사 역할을 하였다.

연산에서 황심(토마스)의 행적

을묘년(1795) 7월에 유관검의 당질 유중태가 사람을 보내 저를 급히 오라고 했으므로 제(윤지현)가 즉시 유중태의 집에 가니, 유중태가 “서울 사는 송운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부의 서찰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편지 안의 말뜻을 보니 “중국 천주당에 편지를 보내려는데 서로 믿고 들여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을 처리할 사람을 구해서 보내도록 운운”이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중태가 저에게 말하기를 “연산에 사는 황신거(황심)가 실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연산으로 가서 불러오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과연 가서 황신거를 불러오니, 유관검과 유중태가 100냥을 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황신거를 천주당으로 보내는 이유를 물으니 유중태가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에는 성교를 돌보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만일 큰배^{大船}를 불러들이면 신부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성교^{聖敎}가 널리 선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 윤지현이 포도청에서 진술한 내용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 자료집』 제3집, 279쪽

—
복자 이보현
(프란치스코)과
주문모(야고보)
신부



1795년에는 복자 주문모(야고보, 1752~1801) 신부가 박해를 피해 연산 이보현의 집으로 피신하여 2개월간 은신한 바 있다. 조선 교우들의 청원으로 1794년 12월 24일 입국한 중국인 주문모 신부는 이듬해 1월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해 4월 그의 입국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박해가 시작되었다. 박해를 피해 주문모 신부는 연산으로 피신하였고, 이어 다른 곳에서 10개월가량 은거하다가 1796년 5월 서울로 돌아갔다.

한국 교회 초창기의 역사를 보면 논산지역은 내포지역처럼 큰 규모의 개종운동이 일어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복음이 전해진 시기는 1784년 초기 신앙공동체가 조선에 형성되자마자 아니라 진산과 청양, 그리고 내포지역의 영향을 받으며 1890년경에 공동체가 형성된 듯하다. 비록 복음 전파는 늦었지만 비교적 안전한 웅기 교우촌이 형성되어 교우들이 공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3. 신유박해(1801)

1791년 진산 사람 윤지충(바오로)이 제사를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 신해박해가 발생하였다. 전국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검거되어 몇몇은 처형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회유한 후 석방되었다. 당시 천주교가 수용된 초기이고, 정조 임금이 교화정책으로 일관하였기에 적극적인 박해 정국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런 가운데 정조 임금은 신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충청도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충청감사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다. 이에 충청감사 박종악(朴宗岳, 1735~1795)은 1791~1792년 사이에 여러 차례 비밀 편지를 작성하여 정조에게 올렸다. 박종악이 작성한 『수기』(隨記)를 보면 논산지역의 신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진산사건의 여파가 미친 기록도 없다. 이전 정황으로 보아 논산지역에 신자들이 거주하였지만 감찰의 대상이 될 만큼 눈에 띄지는 않았던 듯하다.

정조 임금이 승하하고 순조 임금이 등극하면서 발생한 신유박해(1801년)에는 논산지역에서도 박해가 있었다. 은진 사람 이채운, 이상원, 오한상, 황경달 등 네 명의 교우가 유배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경상도로 유배되었는데 이채운은 진주, 이상원은 거창, 오한상과 황경달은 창녕으로 보내졌다.

신유박해는 조선 정부가 주도한 전국적 박해로 천주교의 지도급 신자들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선 정부는 아직 천주교 수용이 20년이 안 된 시점 이어서 중심인물들을 처단하면 신앙공동체가 와해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유배를 당한 은진지역 교우들은 논산지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던 이들로 판단된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체포되고 형벌을 받았는지, 그리고 유배 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다.

4. 임신박해(1812)

1801년 신유박해는 그해 말에, 천주교를 엄단하는 임금의 교지인 「척사윤음」(斥邪綸音)이 반포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척사윤음」의 반포는 박해의 끝인 동시에 언제든지 천주교 신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 금령에 따라 1812년 갑자기 충청도에서 박해가 발생하여 네 명의 교우들이 순교하고 몇몇이 유배형을 받았다. 그 안에 연산 출신이거나 연산으로 이주해 온 교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 원 베드로

원 베드로는 결성 덕머리 사람으로 비신자가 운영하는 웅기가마에서 일하던 평민이었다. 형과 함께 교리를 배워 입교한 그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려고 홍주 황쇠울로 이사하였다. 여기서도 외교인이 경영하는 웅기가마에서 일하다가 관원에게 체포되어 문초를 당한 후 풀려났다. 이후 형과 더불어 신자들이 경영하는 웅기가마가 있는 연산 의실로 가서 정착하였다.

1812년 박해가 일어나 마을 교우들이 밀고를 당하자 원 베드로는 진천 질마루로 피신하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체포되어 연산으로 압송되어 문초를 받았다. 9월 중순 즈음에 공주로 옮겨져 다시 문초를 받았다. 마음이 약한 형은 배교하여 귀양을 갔으나 원 베드로는 세 번의 문초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는 마지막 문초를 받은 날인 10월 초순 밤, 감옥에서 순교하였다.

2) 장대원 마티아

장 마티아 역시 결성 덕머리 사람이다.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

를 잃은 후 이집 저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지냈다. 그래도 가난을 이기지 못하여 떠돌이 광대 패에 끼어 다니던 중 천주교를 알게 되었다. 입교 후 마음을 바로잡은 그는 진산 술티⁴의 교우 옹기마을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러나 얼마 동안 냉담하며 첩까지 얻어가면서 생활을 하였다. 이후 본처가 사망하자 첩과 정식으로 혼인하고 다시 신앙 생활에 몰두하였다.

박해가 일어나자 장 마티아는 연산 의실로 피신했다가 1812년 8월경 체포되어 공주로 압송되었다. 그는 혹독한 형벌과 굶주림, 목마름을 못 이겨 잠시 마음이 약해졌으나, 함께 갇힌 교우의 권면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였다. 이후 1812년 음력 10월 19일⁵, 황 바오로와 함께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3) 윤 생원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윤 생원(生員)은 연산에서 나고 자란 인물로 1812년 연산에서 체포되어 공주로 압송되었다. 그는 신앙생활이 오래지 않아 아직 삼종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교우였으나 어떤 형벌에도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 따라서 당연히 사형에 처해져야 했지만, 당시 윤 생원이 지극한 효자로 알려져 있었기에 관례에 따라 감형되어 북쪽 지방으로 유배되었다. 2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그는 1832년 연산으로 돌아와 충실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향에서 선종하였다.

원 베드로, 장대원 마티아, 윤 생원의 행적을 보면 초기 논산지역 공동체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논산지역에서 처음부터 신앙공동체를 확고히 형성한 곳은 연산이었고, 그중 의실이 특히 그러하였다. 옹기를 굽는 교우들이 마을을 이룬 의실은 일찍부터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박해를 겪으면서도 지속적인 신앙공동체를 유지하였다. 또한 그들은 내포와 진산지역의 교우들과 연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적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 내포지역의 신자들 상당수는 박해를 피해 충청도와 전라도의 접경인 금산과 고산 일대로 이주하였다. 이 지역은 대둔산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논산, 동남쪽으로는 금산과 진산, 북쪽으로는 대전의 진잠으로 통한다. 이 지역은 박해가 시작되자 먼저 거주하던 교우들과 내포지역, 서울, 경

기 등에서 이주해온 교우들이 서로 어울려 큰 공동체를 이뤘다. 이 공동체는 박해가 계속되는 조선 후기 내내 유지되는데 그 초기의 모습이 연산 의실 교우들 안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Ⅱ. 신앙공동체의 성장

1. 기존 공동체의 성장

1812년 박해 이후 논산지역 천주교에 관련한 특별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3년이 지난 1815년 경상도 북부에서 시작된 을해박해 때에도 논산에 어떤 위험이 닥쳤다는 기록이 없다. 을해박해 때 잡힌 이들 중에는 내포지역 출신 교우들, 그리고 논산지역에서 멀지 않은 공주와 전라도 고산 지역에 피신해 살다가 경상도로 이사하여 순교한 교우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논산지역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논산지역 신앙공동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은진과 연산 교우들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된 124위 복자들 중 오종례(야고보, 1821~1840)의 생애가 그 사실을 말해준다.

—
오종례(야고보)



오종례는 1821년 은진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모에게서 교리를 배워 어려서부터 신앙을 실천했으므로 1790년경 은진에 이미 형성된 신앙공동체가 이어지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은진의 교우들은 전라도 고산과 진산 교우들과 교류하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연산의 신앙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1812년 유배형을 받고 북쪽 지방에서 귀양살이하던 연산 사람 윤 생원은 1832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기도문들과 각종 교리를 익히기 시작하였고,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신앙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윤 생원뿐만 아니라 연산의 교우들도 역시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2. 새 공동체 형성

1839년 발생한 기해박해는 조선 정부에서 주도한 전국적 박해로 그 여파가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많은 교우들이 순교하였고, 살아남은 교우들 상당수는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정황이 보이는 강경지역으로 피난한 교우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강경성당





강경 출신의 첫 교우로 알려진 이는 이중필李重弼이다. 그는 교리를 배우기 위해 1799년 식구들을 거느리고 서울로 이사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몰두하였다. 그의 가족은 강경에 있을 때 입교한 듯한데, 서울로 올라간 후 강경으로 되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다.⁶

이중필의 행적을 보면 강경에도 1790년대 후반에 천주교가 전해진 정황이 드러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신앙공동체의 존재가 드러나는 시기는 기해박해 이후이다. 임천(林川, 충남 부여군 충화면 일대) 지역 교우들이 신분이 노출되자 박해를 피해 처음 이사한 곳이 강경의 세도世道였다. 그들은 다시 강을 건너 현재의 강경성당 부근으로 이주하여 자리를 잡았다. 그 일대는 조선 말, 시장이 번창한 강변으로 ‘섬말’ 혹은 ‘석교 근처’로 불렸다고 한다. 이렇게 변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강가에 천민들이 집단을 이루며 살던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교우들이 정부 기관의 감시에서 벗어나 살 수 있었다.

강경에는 외지에서 피신한 교우들뿐 아니라 1845년 무렵에는 새로 입교한 교우들 몇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지역 교우들과 교류하며 알고 지내고 있었기에 김대건 신부 일행이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와 강경으로 상륙할 때 집을 제공할 수 있었다. 김대건 신부와 함께 강경에 도착한 페레올 주교의 편지에 의하면, 강경 교우들은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적어도 한 사람은 주물공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름이 알려진 강경 교우로는 구순오具順五가 유일한데 그의 집은 현재 강경읍 흥

교동에 있었다고 한다.⁷ 구순오는 장사를 하여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는데 페레올 주교, 다블뤼 신부, 김대건 신부가 상륙하여 첫날밤을 지낸 집의 주인이었다.

3. 강경과 김대건 신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강경 신앙공동체는 1845년 10월 12일 김대건 신부 일행이 강경에 도착하면서 조선 교회의 중요 거점이 되었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해 김가항(金家巷)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사제품을 받아 첫 한국인 사제가 되었다. 그날 서품식에는 김대건 부제와 함께 라파엘호를 타고 건너간 조선인 교우 11명도 참석하였다.

그해 8월 31일 김대건 신부는 페레올 주교, 다블뤼 신부, 조선인 교우들과 함께 라파엘호를 타고 조선으로 향하였다. 본래 목적지는 서울이었으나 풍랑을 만나 표류한 끝에 9월 28일에 제주도에 표착하였다. 김대건 신부 일행은 제주도를 떠나 서울을 향해 출발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결국 상경을 포기하고 10월 12일 강경에 닿을 내렸다. 이후 강경 교우 둘이 마중을 나왔다.⁸ 이 과정을 보면 라파엘호에 타고 있던 조선인 교우들과 강경 교우들이 서로 알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한밤중에 마중 나온 강경 교우들은 준비해온 상복(喪服)을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에게 입혀 분장시킨 후 교우 집으로 안내하였다. 함께 온 11명의 교우들 대부분은 그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페레올 주교는 그 집에서 숨어 지내며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대목구의 교구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다블뤼 신부는 강경에서 90리 떨어진 공동(Kon-tong)이라는 작은 교우촌으로 보내져 조선말을 배웠다.

조선대목구 제3대 교구장 페레올 주교는 강경에 머물면서 2달 동안 성무를 집행하였다. 동시에 그는 중국에서 조선 입국을 기다리는 메스트르 신부와 최양업 부제가 입국할 길을 마련하라는 새로운 임무를 김대건 신부에게 부여하였다. 훗날 페레올 주교는 강경에 집 한 채를 구입하여 조선대목구에서 사용할 경비를 보관하도록 조치하였다.⁹

김대건 신부는 한 달 정도 강경에 머물면서 페레올 주교의 지시를 이행할 준비를 하였다. 그는 상해를 다녀온 임성룡(林成龍)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배를 구입하였다.

라파엘호는 고된 항해 속에서 거의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수리하였기에 이상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김대건 신부는 적어도 11월 20일 이전에 강경에서 준비를 다 하고 상경하여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⁰

김대건 신부 일행의 강경 체류와 직무수행은 한국 교회사 안에서 큰 의미가 있다. 1839년 기해박해가 발생하고 9월에 프랑스 선교사 세 명(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이 순교함으로써 조선 교회는 목자 없는 교회가 되었다. 박해로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잃은 교우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또한 중국으로 통하는 육로에 감시가 심하여 새로운 선교사들의 입국은 물론 조선 교우들과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사이에 연락도 힘든 상태였다.

이 때문에 중국에 도착해있던 프랑스 선교사들, 그리고 공부를 마친 김대건과 최양업이 조선에 입국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결국, 1845년 10월 김대건 일행이 오랜 역경을 딛고 강경에 도착함으로써 6년 이상 지속된 공백이 해소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조선 입국은 단순한 도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선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교구장 페레올 주교는 강경에 머물며 성무집행을 하며 조선 교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고, 교구 재정을 보관해둘 장소로 강경을 눈여겨보았다. 김대건 신부는 한 달 정도 강경에 머물면서 페레올 주교의 지시를 수행하는 동시에 사제로서의 첫 성무 활동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강경은 페레올 주교의 첫 사목지로, 또한 한국인 첫 사제 김대건 신부의 사목지로 기억되어야 한다.

—
김대건 신부
일행의
강경 상륙
기록화



페레올 주교의 편지

조선 남부지방 강경江景

1845년 10월 29일

친애하는 동료 신부님,

저는 6년 동안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마침내 제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무수히 찬미 받으소서! 이 복된 소식은 신부님을 기쁨에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극동에 위치한 이 나라에 제가 어떻게 입국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고 하셔서, 서둘러 신부님의 기대에 부응해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로 가지 않기로 하고, 동시에 (조선 서)남부의 첫째 도[전라도]의 북쪽 작은 강변에 위치하고 하구에서 내륙 쪽으로 6리외[약 24km] 들어간 강경 포구에 가서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 최근에 신앙을 받아들인 새 신자 몇 가족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15일간을 항해했습니다. 역풍이 불어오고, 물살은 빠르고 암초는 많았습니다. 배는 여러 번 바위에 부딪혔고 자주 모래바닥에 빠졌습니다. 그보다 더 빈번히 출구가 있으리라고 희망했던 만[灣]에 들어갔다가 안쪽의 막다른 곳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배에 딸린) 작은 배를 육지에 보내 우리가 갈 길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10월 12일 드디어 우리는 포구에서 좀 떨어진 외딴곳에 닻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배에서 내리는 일은 최대한 은밀하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을 신자들에게 보내 저희가 도착한 일을 알리게 했습니다. 밤에 두 명의 신자가 저희를 그들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상복 차림으로 배에서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저에게 거친 생마포로 만든 겹옷을 걸쳐 주고 머리에는 짚으로 만든 커다란 모자를 씌웠는데, 어깨까지 내려오는 그 모자는 반쯤 접은 작은 우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준비를 마치자, 선원 두 사람이 우리를 업어다 순교자들의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착좌식’은 그리 화려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일을 소리

없이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음을 틈타서 앞장서서 가는 신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흙으로 지어진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방이 두 칸 있었고, 높이가 3피에[약 96cm]인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창문 역할도 합니다(……). 저는 낮 시간에는 이 오두막집 안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어서야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곧 다블뤼 신부와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어느 작은 교우촌으로 보내 조선 말을 배우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 나라의 수도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단언하므로 돌아오는 한겨울에 그곳으로 갈까 합니다. 현 상황으로 보아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저희는 몹시 불안정하게 삽니다.

이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교한) 우리 동료 신부님들이 계셨을 때보다 활동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활동에 대하여 조정이 더 많은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고, 또 박해로 인하여 신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숨어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리저리 사람을 보내 신자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만일 (박해자의) 칼날이 우리에게 시간 여유를 좀 준다면, 저희가 와 있다는 비밀이 탄로 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면서, 슬픔에 빠진 양 껌을 사목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병오박해(1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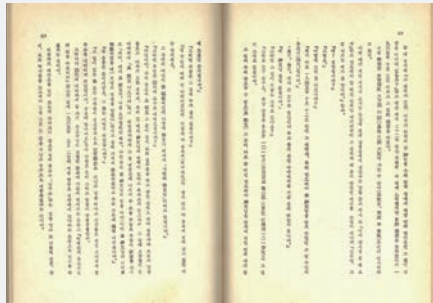
1845년 12월 중순 경에 페레올 주교는 강경을 떠나 서울로 향하였다. 큰 위험을 당할 거라는 몇몇 교우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복을 입고 걸어서 서울까지 갔는데 예상과 달리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상복의 어두운 천과 커다란 방갓이 몸을 가려주고, 사람들과 마주칠 때는 천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신부가 서울에 미리 마련해둔 집에서 기거하며 활동한 듯하다. 김대건은 1845년 라파엘호를 타고 중국 상해로 건너가기 전, 집을 한 채 마련하여 교우에게 관리하도록 맡겨놓은 바 있었다.¹²



11월 20일 이전에 강경을 떠난 김대건 신부는 7개월가량 큰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1846년 6월 5일, 김대건 신부가 서해의 순위도에서 체포되면서 병오박해가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의 입국로를 개척하라는 페레올 주교의 지시에 김대건 신부는 임성룡 등과 함께 마포를 출발하였고, 연평도, 순위도 등산진을 거쳐 5월 29일 백령도에 도착하였다. 그는 비밀리에 중국 어선과 접촉하여 서한과 지도를 전달했다. 그 후에 김대건 신부 일행은 다시 순위도 등산진으로 귀환하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려는 관원들과 배를 빌려 쓰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정체가 밝혀지면서 체포되었다.

김대건 신부 일행은 6월 10일 해주 감영으로 압송되었다. 문초 과정에서 구순오의 이름이 나오자, 조정은 강경에 포졸들을 파견하였다. 구순오는 강경에 있으면서 페레올 주교가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환전하여 김대건 신부 일행을 돕던 중이었다.¹³ 그들은 중국에서 올 때 조선에서 사용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져왔다. 조선에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은 “여러 가지 색깔, 특히 흰색 서양 포목과 여러 가지 색깔의 명주, 여러 가지 색, 특히 붉은색과 푸른색의 중국 포목과 이와 비슷한 것들”¹⁴이었으므로, 이 물건들이 강경에 보관되어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그 물품들을 관리하던 구순오도 체포되었는데, 그 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다만 증손녀로 알려진 안나의 증언에 의하면, 포졸들이 집 앞에 당도하자 ‘두 손을 하늘로 쳐들어 기도를 하시고’ 체포되어 순교했다고 한다.¹⁵

증손녀 구 안나의 증언



[오기선] “그러면 부인은 4대째 교우로 내려오십니까?”

[안나] “아닙니다. 우리 증조부 구순오 그 분이 결국 교회 심부름을 하고 금전 관계도 하여 성직자와 교회의 일을 돌보고 더욱이 3명 성

직자, 특히 김대건 신부님과 연락이 있다고 유다스가 밀고하여 그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쳐서 ‘구순오 나오너라’하니 태연자약하게 그 집 대문간에 나서서 두 손을 하늘로 쳐들어 기구를 하시고 ‘자아, 내가 구순오다. 나를 포박할테면 해라. 나는 우리 김신부님의 뒤를 따라 치명의 영광을 받겠다’하시고 잡혀 가셔서 치명하셨다고 우리 가문에 전해 내려옵니다.”

[오기선] “참 훌륭한 분이시군요. 그 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나] “그 일이 있은 후 모든 가족들이 심산유곡으로 파편경의 破弊笠驚衣로 피난의 길을 떠나고 식구들도 점점 식어져서 천주교를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공포에 떨어서요(…).”

그러다가 4대째 내려와서 늘 자기 증조부님의 장렬한 치명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언제든지 증조부님의 뒤를 따르리라’ 결심한 끝에 1965년 5월 2일 서울 영동포 성당에서 안나라는 본명으로 영세를 하였다는 것이다.

오기선, 『곡예사같은 인생』, 63쪽

이때 강경에는 조선대목구에서 구입한 집이 한 채 있었고, 그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교구 재산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집과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 집의 주인은 투옥되었으나 더 큰 박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조선 정부가 9월 16일 김대건 신부를 처형하고, 그와 관련하여 체포된 인물들을 처형한 이후 더 이상 박해를 확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오박해 기록

[1846년] 음력 5월. 그 시기에 앞서, 포교들이 안드레아 신부의 배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이용하여 강경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강경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를 짓는 강가에 위치한 곳이며, 우리가 조선에 도착해서 물에 닿은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 대목구에서는 그곳에다 집 한 채를 사두었는데, 그 집에서 상당한 금액을 아직 빼내지 못했었습니다. 포교들은 강경으로 내려오는 길에 교우 몇 명을 괴롭혔지만, 심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마련해놓은 집을 탈취하여 팔았고 그 집의 가장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니다. 포교들은 거기서 전라도로 이동해 마을 두 곳을 수색했는데, 거의 모두가 피신을 했던 터라 자기네들이 추적하던 선교 활동의 주동자를 찾지 못하자 큰 소동 없이 철수했습니다.

다블뤼 저, 유소연 역,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402쪽

5. 공동체의 안정

병오박해 후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20여 년간 조선 교회는 잠시 안정을 누렸다. 지엽적으로 박해는 있었으나 정부에서 주도하는 큰 박해가 없었기에 교우수가 증가하고, 프랑스에서 파견되는 선교사들도 속속 입국하였다. 교우들이 사는 지역도 확대됨에 따라 1861년에 이르러 조선대목구는 전국을 7개 구역으로 나누고 담당 사제를 임명하였다.¹⁶

관할구역	주보	담당 사제
서울	성모무염시태	베르뇌 주교
충청도 홍주(상부 내포)	성모성탄	다블뤼 주교
충청도 서부(하부 내포)	성모왕고	랑드르 신부
충청도 동북부	성모자현	리델 신부
공주와 인근 지방	성모영보	조안노 신부
경상도 서북부	성모승천	페롱 신부
경상도 서부	성모취결례	칼레 신부

이 관할구역에서 논산지역은 ‘공주와 인근 지방’을 담당하는 조안노 신부의 관할에 놓였다. 하지만 이 관할구역은 선교사가 사망하거나 병 치료 등으로 인해 수시로 변동되었다. 또한 큰 박해가 없더라도 천주교 박해령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므로, 선교사들이 교우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1861년을 기준으로 논산지역의 교우는 연산 17명, 강경 2명, 은진 1명으로 나타난다.¹⁷ 실제 교우는 이보다 많았던 것이 분명하지만 박해 시기의 한계로 이와 같이 파악되었다. 이와 더불어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1876)의 부록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 연산 *Nien-san*, 은진 *En-tsin*, 그리고 노성 *No-seng*에 신앙공동체가 있다고 표시(ㅎ)되어 있다. 이 지도에 표시된 내용은 1866년 병인박해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므로, 1860년대에는 노성에도 교우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병인박해 때 순교한 교우들의 거주지 기록을 보면 논산지역 공동체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먼저 연산 상사바위(충남 논산시 별곡면 덕곡리)¹⁸에서는 김윤지, 김영오(아우구스티노), 김 베드로가 체포되어 공주에서 순교하였다. 연산 중보실(충남 논산시 별곡면 덕곡리)에서는 정 안드레아가 잡혀 공주에서 순교하였다. 연산 사람 김영삼은 전주에서 순교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의 할아버지 김보현(金甫鉉, 요한)은 연산면 고정리 일대에서 살다가 체포되었다.

또한 ‘은진 강경’ 사람 김 베드로는 공주로 이사하여 살다가 체포되어 순교하였다. 은진 사람 서경도는 1866년 공주에서 순교하였고, 은진 관곡 사람 김 치릴로는 서천 비인(庇仁)으로 이사하여 살다가 잡혀 1867년 공주에서 순교하였다. 노성에서 태어난 윤자호 바오로도 여러 곳으로 이사하여 살다가 1868년 수원에서 순교하였다.

이외에도 김춘삼의 중형, 장정선, 박공악 등 논산에서 거주하던 교우들이 관원에게 붙잡혀 순교하였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1860년대 중반에는 논산지역 전역에 천주교가 확산되어 있었다. 초기부터 신앙공동체를 이루었던 연산은 대둔산 줄기를 넘어 진산으로 이어지는 벌곡면 덕곡리 일대에 큰 교우촌이 있었다. 또한 대둔산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고정리 일대에도 많은 교우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연산의 교우들은 동쪽 산 너머 진산 일대의 교우들과 빈번히 교류하며 살아갔다.

금강 동쪽에 위치한 강경과 은진에도 여전히 많은 교우들이 거주하였다. 1846년 병오박해 때 강경에 포졸들이 파견되어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경 교우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였고, 20여년의 세월 동안 신앙공동체는 더 확산되었다. 논산지역 북단의 노성에는 규모는 좀 작지만 교우들이 있었다는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논산지역 전역으로 교우들의 거주지가 확대되던 가운데 뜻하지 않은 큰 박해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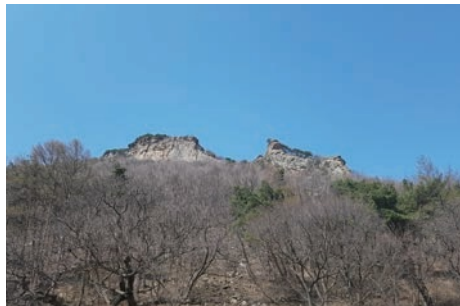
Ⅲ. 병인박해기 순교자들

일반적으로 병인박해는 1866년부터 홍선대원군이 실각한 1873년까지 계속된 박해를 말한다. 동양으로 밀려오는 서양 세력에 대한 위기의식, 국내의 정치 사정, 천주교 지도자들의 오관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비롯된 병인박해는 이전의 다른 박해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혹독하고 기간이 길었다. 1850~60년대를 거치면서 확대된 논산지역 신앙공동체는 이 박해를 피해갈 수 없었다. 1866년 병인년부터 박해가 시작되어 1868년 무진년까지 벌곡, 연산, 은진, 강경, 노성 등 논산 전역에서 교우들이 박해를 당하였다. 이를 현재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벌곡지역

현재 행정구역으로 벌곡면에 해당하는 벌곡지역은 조선 시대에는 연산현에 속하였다. 따라서 ‘연산 상사바위’, ‘연산 중보실’로 기록된 마을은 현재의 논산시 연산면이 아닌 벌곡면 지역이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 마을은 동쪽으로는 진산지역, 서쪽

—
상사바위(좌)와
중보실(우)



으로는 연산지역의 신앙공동체와 연결되는 가교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이외에도 ‘연산 축방이’로 기록된 마을 역시 별곡면 지역에 속한다.

1) 김영오 아우구스티노

김영오 아우구스티노는 1805년 홍주 용면 불모골에서 태어났고 부모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집안이다. 그의 기록은 『병인치명사적』과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에 나타나고 있는데, 기록에 약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가 신부를 영입해오기 위해 중국에 갔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와 전라도 고산 배재(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에 가서 살았다는 것은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에 서만 나타난다. 『병인치명사적』 17권 5~8쪽에는 그가 밝은 교우를 찾아 온진 강경으로 이사하여 겨우 삼중경을 행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839년 4월 여러 교우들과 함께 서울 포교에게 잡혀 여산 관아를 거쳐 진주로 이송되었다. 13개월을 옥에 갇혀 있다가 문초를 받았는데, 다른 교우들을 문초하는 동안 김 아우구스티노는 잠깐 잠이 들었다. 이를 본 감사가 “저 놈은 이 난중에 졸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 무죄한가 보다.”하고 풀어주었다.

김 아우구스티노는 풀려난 후 진산 가새벌(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로 가 살았다. 이후 여기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기록은 바로 연산 상사바위로 이사했다고 하지만, 『병인치명사적』 17권의 내용에서는 연산 축방이(충남 논산시 별곡면 검천리 축동(싸리골) 추정)로 이사하였다. 2번 남경을 갔다 온 후에는 연산 상사바위로 이사하였다.

1866년 8월 18일 그는 연산 포교에게 잡혀 연산 관아에서 문초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프랑스 선교사들과 알고 지낸 지 오래고, 베르뇌 주교와 다블뤼 주교가 순교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자신이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내왕한 사실도 밝혔다. 이후 그는 노성으로 옮겨져 4일을 갇혀 있다가 공주로 이송되었다. 그는 치도곤을 맞는 등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형벌 중에 손목이 부러진 채 5일을 더 옥에서 지내다가 함께 잡힌 김 베드로, 최 서방과 함께 1866년 8월에 순교하였다.

2) 김 베드로

김 베드로는 본래 진산 사람으로 연산 상사바위로 이사하여 살았는데 의붓아들이 하나 있었다. 1866년 포교들이 상사바위에서 교우들을 체포할 때 김 베드로가 출타 중이었으므로 의붓아들만 잡혀가게 되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포교에게 달려가 자신이 대신 잡혀갈 터이니 앞길이 창창한 아들만은 놓아달라고 하였다. 포교들이 이를 거절하자, “아무리 내가 친히 낳은 자식은 아니나 친자식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놓아 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하자 그 아들을 풀어주었다.

김 베드로는 동네는 물론 외지에도 크게 인심을 얻은 사람이었기에 연산 포교들은 그도 풀어주려 하였다. 이를 위해 김 베드로의 집에서 압수한 성물과 교리서들을 보며, “이 장물은 다 김 아우구스티노의 장물이다. 김 베드로의 것이 아니다.”라고 포교들이 말하자 김 베드로가 “어찌하여 내 물건을 남의 것이라 하리오? 이 중에 몇 가지는 내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하였으나 결국 김 베드로는 풀려나지 못하였다. 그는 김 아우구스티노와 함께 연산, 노성을 거쳐 공주로 이송되었다. 그는 문초를 받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1866년 8월 김 아우구스티노와 함께 순교하였다.

3) 김윤지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에 따르면 세례명이 알려지지 않은 김윤지는 연산 상사바위에서 살다가 1866년 포교에게 잡혀 공주에 갇혀 있다가 55세의 나이로 참수 치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증언한 이는 고산 동암(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사는 최 베드로였다.

4) 정 안드레아, 김 토마스

정 안드레아와 김 토마스는 연산 중보실 사람이었다. 1867년 같은 날 잡혀 공주에서 함께 순했다는 짧은 기록만 남아 있다.

상사바위의 전설

조선 중기 때의 일이다. 지금의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마을에 마음씨 좋은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망태기를 들고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한 청년이 숲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청년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농부 내외와 딸의 정성 어린 간호로 청년은 정신을 차렸으나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었다. 청년은 사냥하러 나왔다가 실족하여 다쳤다고 하였다. 청년은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농부의 집에서 며칠 더 묵으면서 치료를 받았다. 농부 내외가 일하러 나가면 농부의 딸이 정성 들여 간호해 주었다. 이런 인연으로 두 남녀는 가까워졌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농부 내외가 모르게 사랑을 속삭였다. 청년이 농가에 온 지도 그럭저럭 한 달 보름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 사이 다친 몸이 완쾌되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청년은 농부의 딸과 결혼을 약속한 후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청년을 떠나보낸 농부의 딸은 온통 청년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뒷산 바위에 홀로 올라 사랑을 속삭이던 일들을 생각하며 청년을 기다렸다. 한편, 청년은 그 고을 원님의 아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부모에게 사냥을 나갔다가 당한 일들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리고 농부의 딸과 결혼하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다. 청년의 말을 들은 부모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거라. 어찌 근본도 없는 천한 여자와 결혼을 한단 말이나?”라고 말하며 필쩍 뛰었다. 원님은 아들을 한양의 규수와 정혼하게 하였다. 청년은 부모 말을 거역할 수는 없는 터라 하릴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수일 만에 찾아오겠다고 청년이 돌아오지 않자 농부의 딸은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매일같이 뒷산 봉우리에 올라가 청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오리라던 청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 처녀의 애를 태웠다. 하루는 농부의 딸이 꿈을 꾸었다. 청

년이 사모관대를 쓰고 산 밑을 지나가는 꿈이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산 위에 올라 들뜬 마음으로 청년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청년이 한양에 올라 혼인을 치르는 날이었다. 청년은 사모관대를 하고 말을 탄 채 길을 나섰다. 그리고 처녀가 살고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농부의 딸은 청년이 말을 타고 산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도련님~!” 하고 불렀다. 그러나 청년은 듣지 못하였는지 무심히 앞만 보고 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치더니 하늘이 온통 뿌옇게 되었다. 농부의 딸은 다시 한번 “도련님~!” 하고 외쳤다. 하지만 청년은 양가 규수와 혼인하러 가는 길이라 이 소리를 외면하였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벼락이 진동하였다. 그녀는 또 다시 “도련님~!” 하고 외쳤다. 청년은 이미 농부의 딸이 있는 산봉우리를 지나 저만큼 멀어져 갔다. 그녀는 사라져 가는 청년을 보면서 바위 아래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마루를 지나던 청년 또한 회오리바람에 말려들어 가 산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이 일이 있는 뒤 이곳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두 개의 바위가 생겨났다. 농부의 딸과 청년이 떨어져 죽은 자리에 바위가 솟아오른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들 바위가 맺지 못한 두 사람의 원혼이라 하여 상사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출처:디지털 논산문화대전 홈페이지

2. 연산·노성 지역

‘상사바위’ 혹은 ‘중보실’처럼 세부 지명 없이 ‘연산’으로만 기록된 교우들이 여럿 있다. 이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현재의 벌곡면 지역에 거주했거나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단정할 수 없기에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연산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인근 노성지역도 함께 수록한다.

1) 김영삼

연산 출신인 김영삼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아 충실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진산 가새별로 이사하여 살던 중 병인박해가 일어났다. 1866년 전주 포졸들이 가새별에 와서 김영삼 가족에게 천주교를 믿는지를 물었다. 김영삼은 신앙을 고백하였고 그가 가족을 대표하여 전주로 잡혀갔다. 전주 영장은 김영삼에게 “네 천주학을 하느냐?”하고 물으니 “과연 성교를 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그는 2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참수로 순교하였는데 나이가 20세였다.

2) 김보현 요한¹⁹

김보현(요한)은 김수환 추기경의 할아버지로 1868년 무진박해가 일어났을 때 연산면 고정리 일대에 거주하였다. 8세대 70여 명의 교우들이 모여 살던 이 마을은 병인박해가 일어나면서 거의 다 순교하거나 다른 지방으로 피신하였다.

김보현의 아내 강말손은 남편과 함께 잡혔는데 임신 중이었다. 당시 국법에 따라 임신한 여인은 처형하지 않았으므로 풀려났다. 강 씨는 의지할 곳이 없어 남의 벼짚가리 안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김영석 요셉으로 김 추기경의 아버지이다. 김영석

—
김수환
추기경과
어머니



은 옹기장수로 전전하다가 일찍 죽었기에 그의 아내가 옹기와 포목을 팔아 행상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연산에서 붙잡힌 김보현은 서울로 이송되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의 할머니 강 씨가 한동안 할아버지 김보현의 옥바라지를 했고, 할아버지가 굶어서 순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 윤자호 바오로

윤자호(바오로, 1809~1868)는 노성의 양반 가문에서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와 함께 강경 놀피로 이사하여 살다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죽자 막내아들을 데리고 충주로 이사하였다. 거기서 교우를 만나 천주교를 알게 되고, 고향 노성으로 돌아와 열심히 배워 자신이 먼저 영세를 받았다. 하지만 고향에서는 친척들의 방해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었으므로 늙은 부모를 모시고 공주 계룡산의 한 교우촌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계룡산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좋았으나 먹고 살기 어려웠기에 그는 다시 노성으로 돌아왔다. 친척들의 환영을 받았으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 의무를 맡아야 했고, 친척들이 신자 아닌 여자와 결혼하도록 주선하는 일이 힘들었다. 교우의 딸인 밀양 박씨와 겨우 혼인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부모와 함께 고향을 떠나 광천 독바위의 객줏집으로 가서 머슴을 살았다.

객줏집도 여의치 않아 떠나게 되었고, 장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교우촌을 찾아다니며 교리를 가르치며 생활하였다. 마침내 공주 유구(유기)에 정착하였는데 다블뤼 주교가 판공 때에 와서 윤 바오로를 회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교우들을 열심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헌금을 모아 신부들의 활동을 돕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얼마 후 윤 바오로는 대흥으로 이사했고, 용인 더우골에 이사하여 살다가 병인박해를 당하였다. 박해를 피해 공주 관불산으로 가서 지내다가 1868년 6월에 체포되어 공주로 압송되었다가 수원으로 옮겨졌다. 수원 감옥에서 함께 갇혀 있는 교우들을 권면하고 선행을 베풀다가 7월 18일 교수형으로 순교하였는데 그때 나이 60세였다.

—
노성옥이 있던
자리



—
연산아문과
비석들



4) 김 세례자 요한

김 세례자 요한은 연산 사람이다. 그는 공주 집때울²⁰로 가서 살다가 음력 1866년 12월 24~5일에 공주 포교에게 잡혀 옥에서 45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3. 은진·강경 지역

조선 시대에 강경은 은진현에 속해 있었기에 옛 기록에는 ‘은진 강경’, ‘은진 강경이 (강경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은진현은 충청과 호남을 잇는 길목이었으므로 전라도에서 잡힌 교우들이 서울로 이송될 때 잠시 머물러 가는 장소이기도 했다.

1) 김 베드로

은진 강경리 사람 김 베드로의 집안은 본래 천주교를 믿지 않았었다. 어느 해인가 부모가 먼저 입교하자 김 베드로도 교리를 배워 교우가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점차 신앙을 멀리했고 오히려 늦게 배운 김 베드로가 아내, 자식들과 착실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를 당할 무렵에 김 베드로 가족은 공주에 살고 있었다. 거기서 잡혀 관가로 가기도 전에 포졸들이 다른 신자들을 밀고하라고 심한 형벌을 가했으나 한 사람도 대지 않았다. 공주로 끌려간 김 베드로는 또다시 형벌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얼마간 옥에 갇혀 있다가 교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 나이는 43세였다. 15년 정도 지나 57세 된 그의 아내 장 비르지타니가 남편의 순교 행적을 증언하였다.

2) 서경도

은진 사람 서경도는 세례명이 알려지지 않았다. 병인박해 때 공주 포교에게 잡혀 42세의 나이로 치명하였다. 순교한 때는 1866년 10월이었고, 나이는 42세였다.

3) 김 치릴로

김 치릴로는 은진 관곡(혹은 관덕, 관적) 사람으로 30살 무렵 그의 숙부와 함께 입교하였다. 비인 떠안말로 이사하여 회장을 맡았는데 평소에 “사람이 세상에 나서 주를 받들어 섬기다가 치명은 반드시 할 일”이라고 말하였고, 다른 교우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본읍 포교에게 잡혀가 관가에서 문초를 받았다. 관장이, “네가 사악한 가르침[邪道]에 빠져 백성을 유혹하고 남의 재물을 탈취한다 하니 어찌 그런 도를 행하느냐?”고 묻자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하늘을 욕하라는 말에 김 치릴로는 중국 은나라 임금 성탕(聖湯)과 무을(武乙)의 고사를 들어 이야기하

며, 하늘을 욕함은 너무나 큰 죄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관장이 치릴로의 말이 옳다고 하며 풀어주었다.

이듬해 1867년 10월 치릴로는 공주에서 파견된 포졸들에게 다시 체포되어 공주로 압송되는 중에 길에서 아들을 만났다. 그는 아들에게 옷을 벗어주며 “어린 아유를 데리고 잘 있으라.”라고 당부하며 떠나갔다. 공주에서 순교한 치릴로의 시신을 그 아들이 찾아 장사지냈는데 얼굴이 살아있을 때와 같았다고 전한다. 순교할 때 치릴로의 나이는 52세였다.

4) 이 바오로

조선 시대의 옛길을 보면, 전라도에서 서울을 갈 때 은진-노성-공주를 거쳐 간다. 때문에 서울에서 파견된 포교들에게 잡힌 전라도 교우들은 상경하는 길에 은진 혹은 노성 관아에서 잠시 머물거나 옥에 갇혀 있다가 떠나갔다. 그중 한 교우가 1866년 서울에서 순교한 이 바오로이다.

이 바오로는 본래 충청도 정산 사람이었다. 그가 먼저 교리를 배워 입교한 후 부

—
은진관아 터
(은진초등학교
자리)



모에게 권하여 함께 신자가 되었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보령 남포로 이사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체포되어 10여 일을 옥에 갇혀 있다가 혹형을 참지 못하고 배교하고 풀려났다. 괴로운 마음으로 살던 중에 그해 3월 30일 다블뤼 주교 일행이 보령 갈매곶에서 순교하자 이 바오로는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순교자들의 시신들을 빼내어 묻어주었다.

박해가 더 심해지자 이 바오로는 전라도로 피신하여 있다가 서울에서 파견된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은진 관아로 들어갈 때 가족들이 따라오자, “너희는 다 오지 말고 있다가 주명대로 세상을 지낸 후 천국에서나 만나자”라고 말하고 공주를 거쳐 서울로 압송되었다. 공주에 이르렀을 때 그의 동생도 잡혀 왔으므로 함께 서울로 가게 되었다. 이 바오로는 이번에는 배교하지 않았고 10여 일간 옥에 갇혀 있다가 교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 나이는 63세²¹였다.

5) 황 세례자 요한

황 세례자 요한은 군난 당시 강경의 교우집에 머물러 몇 날을 지냈으며 그곳에서 꿈을 꾸고 곧 치명할 것이라고 『병인치명사적』과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황석두 루카의 양아들로 병인년 당시 전라도로 피신하였는데, 이후 집으로 가면서 강경의 교우집에 머물렀다. 그는 그곳에서 길을 가는 도중 큰 뱀이 길을 막아 칼로 치니 피가 길에 가득하고 마음이 쾌활해지는 꿈을 꾸었다. 그는 그 꿈이 자신이 치명할 꿈이라고 생각하고 친구에게 그 꿈을 말하였다. 얼마 있다가 그는 경포에게 붙잡혔고, 서울에서 31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